봄이 오는 날

김 상 분 수필가
한국문협서울시지부 이사(現)
마포문화원 이사(現)

동지 지나고 사흘이면 노루 꼬리만큼 길어진다는 해는 아직도 짧기만 하다. 오늘이 입춘이지만 봄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산자락에는 겨우내 내린 눈이 여전히 쌓여 있고 바람은 차다. 나목으로 한겨울을 지낸 활엽수 사이사이로는 하얀 눈빛을 받은 청솔이 더욱 푸르다.

"푸드득!"

산비둘기가 날고, 직박구리의 짝을 찾는 소리가 어느새 골짜기를 하나 가득 메운다. 바람결에 실려 오는 이 향기는 누가 보내주는 마음인가. 설레는 가슴으로 깊게 아주 깊게 들숨과 날숨을 거듭해 본다. 알 수 없는 향기를 찾아 몇 걸음 더 산길로 접어든다. 바람소리에 눈 녹아내리는 봄 냄새다. 봄 눈 녹는 소리에 담겨오는 싸아한 이 향기가 겨울의 끝자락을 밀어내는 듯하다.

정녕 봄이 오려나 보다. 어디선가 돌돌거리며 흐르는 여울물 소리가 눈 덮인 얼음장 아래 숨어서 수줍은 아가씨처럼 속삭인다. 뽀얗게 물오른 갯버들은 꽃가지처럼 피어나고 망울지는 꿈으로 들떠있다. 멀리 보이는 과수원 한쪽으로 어린 묘목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나뭇가지 끝마다 빠알갛게 물들어 보인다. 겨우내 눈보라에 시달리며 얼어버린 얼굴일까? 아니면 어느새 봄물을 가지 끝까지 빨아올린 설레임일까? 작은 봄 동산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듯하다. 아마도 내 마음 속의 아지랑이를 보았나 보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멀리 바라사니(발화산의 사투리) 고갯마루를 쳐다본다. 아직은 겨울하늘, 하얀 솜이불로 동면(冬眠)을 감싸고 있어도 그래도 그 색깔이 달라 보인다. 산마루에 걸린 한 조각구름도 한결 부드럽게 다가온다. 어머님께서는 저 험한 산길을 넘어 구미의 외가로 피난길을 가셨겠지. 아버님은 어디에 계신지 생사를 모르고, 어린 아들을 업고 밤이슬 내리는 어둑한 길을 더듬어 저 산등성이를 넘으셨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던지……. 그 시대에는 누구나 겪었던 아픔을 디딤돌 삼아 많은 것을 이룩하시고 이제는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신 두 분. 손잡고 옛이야기 나누며 행복한 영면의 날들을 수놓고 계실 텐데도 잘 계신가 궁금하여 한 바퀴 돌아보고 와야 마음이 놓인다. 시부모님의 유택은 빛나는 은빛 궁전이다. 하얀 눈 덮인 봉분은 너무도 평화롭다. 상석 위에 쌓인 눈은 백설기처럼 푸짐하여 빈 손 빈 마음으로 온 부끄러움을 덮어 준다. 눈밭에 엎드려 사배(四拜)를 올린다. 언제나 한 마음 한 바람으로 절하고 또 절한다. 하늘나라에 계신 두 분의 평안과 자손들의 안녕을 비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 같은 기원을 드린다. 결국 시부모님의 유택을 돌아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주문을 외우고 가는 듯하여 민망한데, 그래도 내리사랑을 믿는 마음에 돌아서는 발길이 가벼우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돌아서 내려오며 다시 뒤돌아보아도 둥그렇게 눈 쌓인 하얀 봉분은 고향의 언덕인양 평화롭기만 하다. 아마도 그래서 때마다 올라와 잠시나마 부모님을 생각하고 머무는 마음인가보다.

지난 겨울은 왜 그토록 추웠을까? 소한 대한 지나기가 힘든 절기임은 알았어도, 근래에 보기 드문 추위여서 견디기 힘들었다. 눈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내린 눈이

녹기도 전에 또다시 쏟아져서 근심이 그치지 않았다. 무거운 눈에 농막이 주저앉을까 걱정되어 버팀목을 몇 개나 받쳐 놓고 조바심하기를 몇 번이었는지……. 우두둑 부러져 나가는 나뭇가지도, 통째로 쓰러지는 나무도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제는 설도 지났고 오늘이 입춘이라니 그만 마음 놓을 수 있을까? 정이월(正二月)에 대독 터진다고 하시며 매서운 늦추위를 염려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금 생각난다. 지난해 이른 봄에도 때 아닌 폭설로 매화봉오리가 피지도 못하고 얼어버려서 매실 구경은 커녕 십년 가까이 키운 배롱나무도 안타깝게 보내야 했다. 그토록 애지중지 볏짚으로 싸매주며 정성을 들였건만 대자연의 힘을 누가 이길 수 있으랴. 그저 하늘의 뜻이려니 어질고 순하게 받들어야 하리라 생각하며 백일홍(百日紅)의 아쉬움도 접지 않았던가.

대독 터지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동장군의 위세인지 바람신의 시샘인지, 꽃이 피지 못하게 하는 이 찬바람을 어머니께선 달리 얘기하셔서 더욱 오싹한 느낌이었다. 봄바람은 님 죽은 바람이라고, 그래서 옷깃에 스며들며 파고들어 더 차다고 하시며 목도리를 단단히 감싸 매던 어머니 모습이 그립다. 꽃샘 잎샘추위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말도 맞는가 보다. 정말 옷깃을 바싹 여미어도 찬바람이 스며든다. 바람이 또 휘이 분다. 추운데 어서 내려가라고 하시는가보다. 해도 이제 설핏 기울었으니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하시는 듯하다. 산자락 아래는 언제나 겨울이 길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또 얼마나 매운지 마을은 아직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하다. 기우는 햇살이 더 엷어진다. 저녁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을 보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나의 농막에도 나의 정원에도 겨울은 아직도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다.

아침 햇살을 받는 농막의 동쪽 지붕은 벌써 눈이 녹았는데, 서쪽은 그대로 쌓여 있다. 벚나무 때문일까? 잎 진 나목이라도 넘어가는 햇살조각마저 가리나보다. 지붕 끝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 요술 지팡이 같은 수정 고드름에 반짝이던 어린 시절의 봄날을 비추어 본다. 유년의 추억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빛나는 보석, 그 때의 꿈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어 그 안에 담겨 있으리.

눈 속에 새우잠 자는 냉이며 달래는 지금쯤 꽁꽁 언 얼굴을 바스락거리고 있을 것이다. 콩새들이 무리 져서 영산홍 낮은 가지 밑에 앉아 소란을 떤다. 저녁 까치도 몇 마디 거드는 것을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대로 "훠이"하며 쫓아버린다. 아침 까치 소리는 반가운 손님 소식이나 저녁까치는 근심이라고 굳게 믿으셨던 철저한 자연 숭배자 우리 어머니. 어제 같은 그 모습이 저만큼 계시는 듯하다. 이제 보름이 지나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 겨우내 얼었던 동토(凍土)가 봄 눈 녹듯이 소리도 없이 풀리고 산그늘의 잔설도 녹아내리겠지. 마치 몸을 푸는 여인처럼 온 힘을 다하여 언 땅이 녹을 때 하늘아래 온 우주의 정기가 솟구치는 대지위에는 부활의 봄빛이 장엄하리라. 겨울잠에서 깨어난 만물이 소생하여 나뭇가지마다 꽃망울이 부풀고 잎눈이 펼쳐져 희망의 전원 교향곡이 울려 퍼지리.

그렇게 해마다 어김없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다시 찾아오는 봄날은 삼동(三冬)과 꽃샘 잎샘추위를 다 이겨낸 다음에 오는 참 평화가 아니런가? 햇빛과 흙, 겨울과 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봄날의 소중함을 깨닫자. 그리하여 진정으로 따스한 봄이 오는 날을 가슴 활짝 펴고 기다려 보자.